

# 음양오행의 상관관계 특성을 이용한 로직개발

A logical development applied the relationship between Yin and Yang and the Five elements

박영목 / 강희승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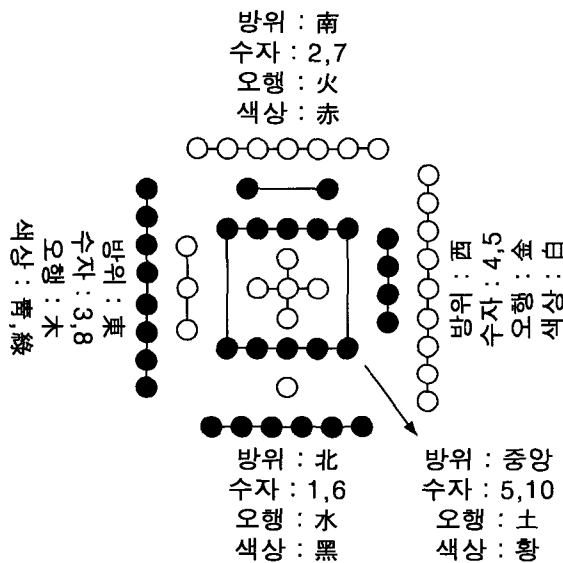
Park, Yeong-Mog / Kang, Hee-Seung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Kookmin Univ.

· Key words : interface design, yin and yang, the five elements

## 서론 : 음양오행을 이용한 상관관계 해석의 특성

선행연구<sup>1)</sup>에서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이론을 빌어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에 이용 가능한 개발체계의 그 개발의 가능성을 고찰한바 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개발체계를 추출하기 위한 기반 연구가 진행 중이며, 첫 단계로 미디어의 기본 요소인 색상, 형태, 위치, 소리를 오행의 속성으로 분류, 해석하고, 이러한 요소 상호간의 대응성을 해석하거나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相生相剋) 관계의 전산화 모델을 개발이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그 중 상생상극 이론의 전산화 모델 개발에 관한 것이다.



[그림 1] 하도(河圖)와 방위, 숫자, 색상, 오행의 관계

이 모델의 개발과 미디어 기본 요소의 재해석에 의하여 향후, 색상, 형태, 위치(방위), 형태, 소리와 같은 요소간의 생극(生剋)에 의한 관계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색상, 방위, 숫자, 형태 등이 오행의 속성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요소들의 상관관계 해석이 상생상극의 관계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적(赤)색은 화(火)의 기운을 뜻하는 색이다. 흑(黑)색은 수(水)를 뜻하는 것으로 수극화(水剋火)로 흑색은 적색을 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색

상간의 관계해석이다. 그러나 화(火)는 남(南)방을 뜻하며 북(北)방은 수(水)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흑색은 남방을 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색상과 색상간의 관계가 아니라 색상과 방위의 관계로서 여기에서도 상생상극의 관계가 대입되고 있다.

이러한 원리로 조형과 색상, 조형과 소리의 대응관계에 대한 해석이나 조형, 색상, 소리, 방위 등의 상관관계를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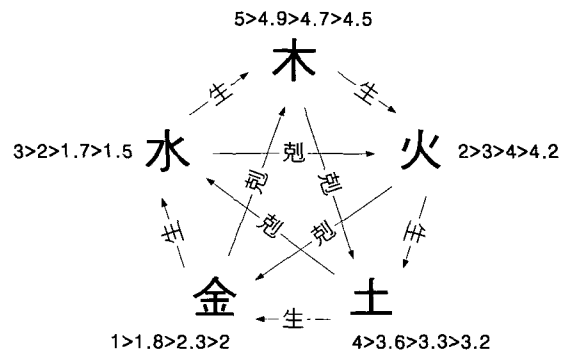
## 본론

음양오행의 대응관계를 논리식으로 구현하고 이를 프로그래밍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 1) 상생상극의 논리식의 개발

음양오행 상생상극의 대응관계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나 실제로는 매우 역동적인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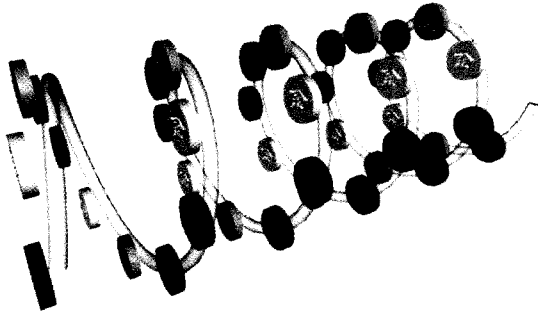
예를 들어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의 목의 힘이 5이고 화의 힘이 2, 토의 힘이 4, 금의 힘이 1, 수의 힘이 3이라고 할 때에, 목이 화를 생하므로 목의 힘이 5이고 화의 힘이 2이므로 화의 힘은 3정도가 된다고 생각해보자, 또한 목의 힘이 5이면 화를 도와주고 힘이 남아 토를 극하므로 토의 힘이 3.6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자. 3이 된 화의 힘으로 3.6의 토를 돕기에 만만하므로 금을 극하는 힘은 적다. 3.6이 된 토는 1인 금을 생하므로 2가까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행의 상생과 상극은 다른 행의 값에 영향을 미치게되는데, 이 영향관계가 한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순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생하는 방향은 나의 힘이 되는 한 계속하여 생활



[그림 2] 오행의 상생상극에 의한 값의 순환 변화 예 (각 행의 값의 표기에 있어 5>4.9>4.7과 같이 표기한 것은 한 사이클을 돌 때마다의 값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1) 박영목. [동양적 사고관점에서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고찰]. 2001. 한국디자인학회 추계학술대회.  
박영목 [동양적 사고기반으로서의 미디어디자인 전개 가능성의 연구]. 2002. 조형논총.

것이며 극하는 방향은 나의 힘이 다하는 한 극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림3에서와 같이 각 행의 값은 계속하여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를 입체로 그리면 그림4의 모양이 될 것이다.



[그림 3] 오행의 순환

이와 같이 오행의 각 요소는 다음의 행(상생)이나 그 다음의 행(상극), 전의 요소(생함을 받음으로서 기운을 소진시킴), 다음다음의 요소(극함을 받음)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오행의 상생상극의 값은 어느 한 순간의 정지된 상태의 역학관계의 값이 아니다. 이는 시간의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대상의 설명모델로서 매우 타당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즉,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기술은 기술하는 순간에 다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의 기술이나 해석은 이러한 상생상극모델과 같이 일정한 논리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모델을 구현할 경우, 상호영향에 의한 가감치(加減值)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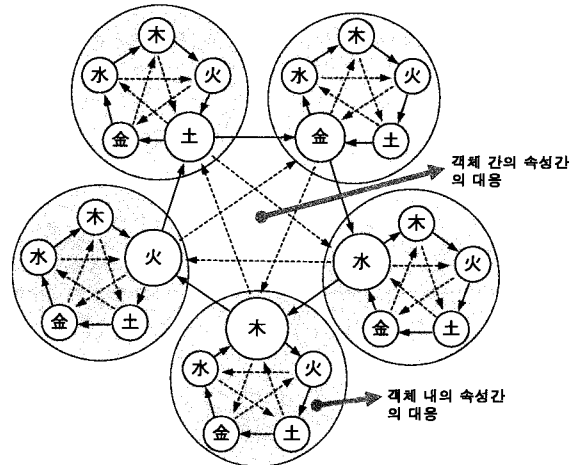
### 2) 오행의 변화(變化)/전도(顛倒)/왕쇠(旺衰)의 대응

오행의 관계는 상생상극 이외에 변화, 전도, 왕쇠론이 있다. 이는 같은 행끼리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나, 비슷한 역학관계가 아니라 극적인 불균형일 경우의 대응관계가 일반적인 상생상극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상생상극의 프로그램화에 있어 두 행간의 값의 차나 동일 행간의 관계 해석의 경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합충(合沖)의 관계성 대입

생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상대를 생하는 것이며, 극은 자신은 다치지 않고 상대를 극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은 서로 도움을 받는 것이며, 충은 서로 다치는 것이다. 이 합충의 개념은 사주(四柱)에서 나오는 것으로 음양이 균형을 이룬다든지, 혹은 비슷한 요소끼리 결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정확도가 높은 로직의 개발 및 프로그램의 구현을 위하여는 상생상극의 대응관계 외에 이러한 대응관계의 개념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생극 외의 대응관계로는 합으로는 천간(天干)합과 지지(地支)합, 방(方)합, 삼(三)합 같은 것이 있고, 충으로는 천간충, 지지충, 그 외에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형(刑), 파(破), 해(害), 살(殺) 등이 있다.<sup>2)</sup>

### 4) 오행의 시스템적 개념으로의 이해



[그림 4] 객체내의 속성 요소간의 대응과 객체간 대응의 개념도

음악오행에서의 대응관계의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그림4와 같은 상황에서의 대응이 가능한 로직이 필요하다. 이는 오행으로 인간이나 사물을 해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목의 기운이 강하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다른 행의 기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물의 경우에도 석탄을 오행으로 해석한다고 할 때, 형은 금(水)이나 질은 화(火)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사목(死木)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고온고압을 받았으므로 토(土)의 기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물의 해석에 있어 오행 중에 단지 한가지의 행만으로 그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힘들다. 심지어 화(火)의 속에도 음이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그림5와 같이 하나의 개체가 다양한 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 한 개의 개체 내에서의 대응관계의 로직은 앞서 이야기 한바와 같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으로서 변하고있는 개체내의 대응관계 해석과 그러한 개체들간의 대응관계의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 5. 결론

지금 까지 음악오행의 대응관계이론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로직의 프로그램화를 개발 중이며, 그 로직 및 프로그램이 해결해야하는 조건들을 추출하는 것을 주 연구의 내용으로 기술하였다. 추출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로직의 설계나 프로그램의 구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의개발을 통하여 음악오행의 대응관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끊임없이 그 역학관계가 변하는 상태의 해석에 적합한 성질을 가짐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2) 이러한 대응관계는 음악오행을 기본 로직으로 하여 사람의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사주(四柱)에서 응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관계에 대한 입장 및 해석 혹은 적용방법 등이 사주학파간에도 다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석영 (사주첩경, 한국역학교육학원, 1996)의 저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였다.